

해남군,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사업 '활기'

233개 마을서 공동체 사업 추진...도내 최대 규모 마을 환경 정화·경관 개선...해남형 ESG 적극 연계

해남군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78개소,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55개소를 추진한다. 전체 515개 마을 중 45%에 해당하는 비율로,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최대 규모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에서 마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민 학습과 역량 강화를 통해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는 일반 공동체 사업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삼산면 한마음신기 공동체는 올해도 너른내장터 운영과 삼산천 및 면소재지 환경정

화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고, 해남자연순환연구회는 환경관련 작품전시회, 플로깅, 웰니스 체험 등 ESG와 연계한 환경 활동을 추진한다.

화산면주민자치회는 취약계층 주거 환경 집수리와 어르신 문화돌봄 등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정전남 으뜸마을사업은 신규 1년차 41개소, 2년차 50개소, 3년차 60개소 등 총 155개 마을이 선정됐다. 주요 사업의 내용은 마을 환경 정화와 경관 개선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은다.

화단 및 꽃밭 조성, 벽화그리기, 쓰레기 문제 해결, 공동우물 정비, 산책길 조성, 태양광 가로등 및 우체통 설치 등 마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 내용 중 해남형 ESG를 적극 연



해남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화산면 연호마을부녀회(왼쪽)모습과 문내면 동리마을회(가운데)가 화단을 가꾸고 있다.



(해남군 제공)

계하고 재활용 분리수거와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등 ESG 실천 사업 내용에 포함해 우수마을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올해 으뜸마을사업은 마을의 역사성과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마을가꾸기를 실시할 예정으로 3년차를 맞은 계곡 월신마을은 마을자원과

독특한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마을 지명 안내판과 쉼터, 바람개비 설치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산 초호마을은 방치된 공동우물을 재정비하고 마을내 고택 등과 연계한 볼거리 제공, 월 1회 전 주민이 쓰레기 줍기 및 환경정화 활동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마을로 변화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으뜸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자립형 마을문화가 형성되고 활기찬 공동체로 되살아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중간지원조직인 해남사회적공공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 등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컨설팅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으뜸마을 3년차 사업이 종료된 마을에 대한 후속 지원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주민 역량을 바탕으로 규모가 큰 마을 공모사업 및 마을기업 설립 등도 꾸준히 뒷받침해 간다는 방침이다.

/해남=박필용 기자



강진군 금동면 금곡사 벚꽃삼십리길에 벚꽃이 만개한 모습.

(강진군 제공)

강진 금곡사 벚꽃삼십리길축제 준비 '박차'

오는 29일 개막...야간경관 조명 설치 '벚꽃 야경' 명소 기대

강진군이 금곡사 벚꽃삼십리길축제 준비로 축제기반 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금곡사 벚꽃삼십리길축제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강진군 금동면 금곡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금곡사 벚꽃삼십리길은 군동면에서 작천면을 잇는 수려한 삼십리 벚꽃길로 매년 봄을 느끼기 위해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 명소다. 군은 행사 기간 중 금곡사 벚꽃삼십

리길의 빼어난 경관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봄꽃길 보물찾기 ▲스마트폰 촬영사진 인화 ▲나만의 화전 부치기 ▲군동 외갓집 체험 ▲타로카드점보기 ▲어린이 버블체험 ▲페이스페인팅 ▲차 무료시음 코너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주무대에서는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신나게 만들어 줄 벚꽃길 즉석 노래자랑과 관광객 참여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음

식이 준비된 먹거리 부스와 지역 농특산물 판매부스도 같이 운영한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벚꽃 개화기간 동안 매일 오후 10시까지 화려한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 운영해 향기로운 꽃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강진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움천사 산사음악회는 30일 오전 11시 개최되며, 40여년 전부터 정암 큰스님이 국대민간의 염원을 담아 직접 쌓아 올린 삼천돌탑은 관리를 위해 출입을 제한했으나 축제기간 3일 동안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강진=정영복 기자

신안 '2024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 개최

내달 28일 1004 뮤지엄파크 주무대

신안군은 25일 "춤"이라는 소재로 MZ 세대를 겨냥한 '2024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자문회에서 개최되는 '100+ 4피아노 섬 축제'에 맞춰 오는 4월 28일 오후 3시 1004 뮤지엄파크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참가자격은 전국의 젊은 층들이며,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 60팀을 모집한다. 이후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2차 본선에 진출할 20팀을 선발한다.

본선 진출에 선발된 20팀은 오는 4월 28일 오후 3시 1004 뮤지엄파크 주무대에서 팀별로 5분 내외의 단체 퍼포먼스

경연을 펼치며 이를 통해 최종 3팀이 선발된다. 시상금은 1위 2천만원, 2위 1천만원, 3위 500만원으로 총 3천500만원을 수여한다.

심사위원은 아이키(스트리트 우먼 파이더) 출연, 후리더, 켈빈(창작 안무), 리벨(스트리트 댄스) 3명으로 국내 최상위 유명 댄스 전문가로 구성됐다. 당일 해당 심사위원의 공연도 함께 할 예정이다.

축하공연은 지난해 제1회 보라해 댄스 경연 대회 우승팀인 '마화연'과 '훅(HOOK)'이 출연한다. '마화연'은 7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일명 손가락 춤으로 알려진 텃팅 크루팀이며, '훅'은 5인조 여성 그룹으로 Mnet(넷) 스트릿 우먼 파이더 시즌1 준우승팀이다.

/신안=양훈 기자

영광군, 농식품바우처 신청 접수

영광군은 25일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 약 2천900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8월까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지역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농협하나로마트, CU, GS25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 2인 가구 5만7천원, 3인 가구 6만9천원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광=김동규 기자

현대삼호중, 21년만... 'HD현대삼호'로 사명 변경

브랜드 가치 제고·기업 정체성 최우선

현대삼호중공업이 브랜드 가치 제고와 그룹과의 기업 정체성 공유를 위해 회사명을 'HD현대삼호'로 변경했다.

25일 HD현대삼호에 따르면 최근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상효를 '현대삼호중공업(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CO., LTD)'에서 'HD현대삼호(HD Hyundai Samho CO., LTD, 약호 HSH)'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새 이름 'HD현대삼호(사진)'는 그룹이 지난 2022년 12월 공식 명칭을 'HD현대'로 변경한 이후 외부 건설팀, 사내



공모 등 오랜 검토를 거친 끝에 최종 확정했다.

사측은 "글로벌 신조 시장에서 기존 현대삼호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그룹과의 기업 정체성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변경은 지난 2002년 현대중공업이 1999년부터 위탁경영하고 있

던 상호중공업을 공식 인수하고 이듬해 회사명을 '현대삼호중공업'으로 바꾼 이후 21년 만이다.

HD현대삼호는 상호 변경과 함께 중국과의 경쟁으로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조선산업의 미래 시장 대비를 위해 신사업과 신산업에 대한 탐색과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AI·로봇, 디지털 전환 등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원가 경쟁과 인력난에 대응할 계획이다.

신현대 HD현대삼호 사장은 "회사명 변경을 기점으로 창업 정신으로 돌아가 기술과 환경, 디지털이 융합된 혁신과 창조역사를 일구어 100년 기업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남=나동호 기자

목포시의회 기획복지팀, 요양병원 개선책 마련 촉구

보건소 방문 관내 요양병원 관리체계 점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25일 "제35회 임시회 기간 중 세밀한 예산심사 및 보건소를 방문해 관내 요양병원 관리체계 점검 등을 펼쳤다"고 밝혔다.

기획복지위원회는 최근 진행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제2회 추경 편성 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의 전액 편성 요청과 대안안단을 분양 받았음에도 중도금·잔금을 연체하고 있는 업체들이 조속히 대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관내 요양병원 관리 감독 기관인 보건소를 방문, 최근 관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철저한 사실 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내 요양병원

전수조사 실시 및 경찰조사 결과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등 개선책을 촉구했다.

백동규 기획복지위원장은 "최근 관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기점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과 시설 종사자들의 돌봄 윤리 교육 강화, 관련 시설들의 지속적인 지도·점

검 등 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백동규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귀선, 송승선, 유창훈, 최지선, 박수경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 노인복지위원회를 위촉하여 노인복지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함평군, 식목일 기념 '희망의 숲' 조성

함평 대동계 생태공원 일원서 산딸나무 등 3천주 식재

함평군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전남도와 '희망의 숲' 조성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함평 대동계생태공원 일원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임업인, 양봉인, 의용소방대원, 군민,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여했으며, 산딸나무, 배롱나무, 산수유나무 3천주를 5ha 규모 임야에 심었다.

특히 나무 심기 행사가 이뤄진 곳은 지난해 4월 산불 재난 3단계가 발령된 대형 산불 피해지 중 한 곳으로 의미가 깊다.

행사에서 나무 심기 문화 확산을 위해 태추단감나무, 대추나무, 체리나무 묘목 1천800주를 1인당 3주씩 600명에 걸쳐 1천800그루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이상익 군수는 "나무를 심는 것은 청정 임산물의 지속 가능한 공급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숲 조성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지난해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탄소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는 30~40년 이상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을 벌채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해 지속 가능한 목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김연수 기자